

# 보도자료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 
주십시오.

## 제 목 : 한국은행 강릉본부, 강릉상공회의소와 강원 영동지역 경제동향 간담회 개최 및 업무협약 체결

- 한국은행 강릉본부(본부장 강환구)는 강릉상공회의소(회장 나영진)와 공동으로 10.17(목) 2024년 제2차 「강원 영동지역 경제동향간담회」를 개최하고 업무협약체결\*을 통해 영동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양 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

\* 경제동향간담회 내실화, 지역 조사연구 관련 협력 확대 등이 주요 내용

○ 일 시: 2024.10.17(목) 10:30 ~ 13:20

○ 장 소: 강릉상공회의소 5층 회의실

○ 참석자: 영동지역 지자체, 주요 기업, 유관기관 대표 등 총 8명

- 금번 간담회에서는 양 기관간 업무협약서 체결식에 이어 '최근 강원 영동지역 실물경제 동향'(한국은행 강릉본부) 및 '국내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'(한국은행 조사국)이 발표되었으며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참석자 간 의견 교환 및 토론이 이루어졌음

“자세한 내용은 <붙임> 참조”

문의처 : 한국은행 강릉본부 기획조사팀 팀장 손승화(033-640-0106), 과장 이영환(0156)

강릉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심일석(033-643-4411)

E-mail: gangneung@bok.or.kr(한국은행 강릉본부), kangrung@korcham.net(강릉상공회의소)

“한국은행 강릉본부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>지역본부>강릉본부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한국은행 강릉본부



강릉상공회의소

(붙임)

## 경제동향간담회 주요 내용

### 주제 발표

#### 1. 최근 강원 영동지역 실물경제 동향 (한국은행 강릉본부 이영환 과장)

- 영동지역 실물경제는 서비스업의 생산과 고용중심으로 더디게 성장했으며 향후 민간소비 회복에 따라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회복될 것으로 전망
  -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건설투자, 시멘트 제조업의 성장이 당분간 제한될 것으로 전망
  - 다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느리지만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
- 실물경제 성장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모니터링할 필요
  - 영동지역 KTX 추가개통(강릉-부산), 엔고에 따른 국내관광 반사이익 가능성은 기회요인
  - 미분양 물량 누적, 지정학적 위기, 기후변화는 위협요인

#### 2. 국내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 (한국은행 조사국 이광원 과장)

- (성장) 물가안정, 대내외 금융 완화기조 확대로 완만한 성장 전망
  - 수출은 개선흐름을 보이나 소비, 설비투자의 회복이 전반적으로 더딘 모습
  - 대외 리스크 확대로 전망의 불확실성이 증가

- (물가) 24.9월 기준 소비자물가 1.6%, 근원물가 2.0%로 안정세가 뚜렷하며 당분간 2% 안팎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
  - 다만 최근 중동사태 전개양상과 관련하여 유가 불확실성이 확대
- (경상수지 및 고용) 경상수지는 흑자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고용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증가폭은 완만하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

## 자유 토론

- 지표상으로는 작년보다 관광객이 늘었지만 KTX 등 교통이 발전한 만큼 무박 관광객이 늘어 숙박업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관광객 수 증가가 숙박업 매출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
  - 기존 소규모 객실 위주의 숙박 형태에서 벗어나 풀빌라 펜션 등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한 특색있는 숙박 형태로의 변화가 요구
  - 단오제와 같은 대규모 지역 축제개발도 중요
- 많은 관광객들이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얻고 방문하기 때문에 골목형 상점가를 운영하는 고연령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지원의 중요도가 점점
- 코로나 기간 중 공급되었던 정책 자금 상환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우려됨
- 지난 몇 년간 관광업은 많이 발전했지만 제조업 측면에서의 발전은 더딘 모습
  - 기업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보호할지 관심을 가져야 하며,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업 육성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도 중요
- 인구감소, 고령화 심화 등으로 외국인 인력 의존이 필수적인 상황에

서 이들과의 갈등이 생기지 않게 외국인 고용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요구

- 정책당국은 단기적 대응보다는 중장기적 시계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